

빅키민의 카밍아우트

박 영 복 본재관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주)조각이 주관한 '2005 Korea Big Women Fashion Show'는 포사이드의 멋수려한 옷을 선보이는 다양한 패션쇼가 아니라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던 빅키민이 그들만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을 과시한 그들의 카밍아우트는 한층 더 의미가 있다.

빅키민이란 88사이즈 이상의 옷을 입어야 하는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상당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66사이즈만은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도 물론 88사이즈까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의성에서 많지 않은 옷을 고르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사회주의 부당한 기준과 무관한 편견 한바탕에 크게 상처를 입으며 '뚱뚱한 여성들은 자기만족을 못한다' '느리다'는 등의 편견과 통념으로 여타의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행사의 모태를 지칭하는 20명의 빅키민은 '그들에게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자녀를 키울 보여주기 위해' '기혼 생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이들을 이행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자' '더 이상 거울 뒤에 숨은 삶을 살지 않게 하자' '자신만의 멋진 개성' '코스프레에 남다른 편을 살려 가자'는 등의 당찬 각오를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을 대대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행사는 그 의미가 깊다고 본다.

여론이 우리사회는 '차이'의 '차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낱의 글이 생감난다. 차이가 곧 차별이 되는 현실에서 다른 것은 이유를 따져서 고통을 받게 하는 사회가 생감하게 된다. 사회를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 (lookism)는 외모지상주의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 lookism이란 용어는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칼리암 셰퍼더가 최근 발표한 것으로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모를 평가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다양한 것들이다. 서울대 의대 임상심리학과에 입사한 여대생 100명 중 52.5%가 성형수술을 했고 82.1%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진정한 사회평등을 개척하려면 모두가 'Yes'를 할 때 'No'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패션쇼에서 빅키민이 자신만의 멋수려한 자신을 자랑하는 데서 즐기는 개념을 하는 것 앞에서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단호히 'No'를 외친 것이다. 외모지상주의 철폐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핸디캡이라고 부려주려 장애인들을 다른 능력으로 찾아내고 (different abler)이라고 하고 한다. 빅키민이기에 이룬다는 것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뚱뚱해져 부끄러워 외갓길에 못 간다는 10대 여중생이 누수없이 외갓길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차별이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지속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